

2023. 8. 16.(수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8월 1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시자원봉사센터

경영기획부장	한 태 석	02-2136-8710
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

기획연구팀장	김 자 옥	02-2136-8705
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

담 당 자	허 미 진	02-2136-8706
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5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<http://volunteer.seoul.go.kr/>

“더위는 열리고 마음은 녹이는 나눔 행동 모으기” 놀이보다 즐거운 「얼음땡 34.9 캠페인」 전개

-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개 파트너 단체, 이웃 위한 동네 냉장고 8월 31일까지 운영
- 종합사회복지관, 제로웨이스트샵 등 시원한 음료와 부채 나누는 ‘얼음땡 정거장’ 설치
- 349회 나눔 행동 모으면 기업과 함께 더위 쫓는 ‘특별한 선물’ 이웃에 다시 나눠

-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무더위에 지친 이웃에 시원함을 전하는 ‘놀이보다 즐거운 「얼음땡 34.9 캠페인」’을 8월 31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.
 - ‘얼음땡 캠페인’은 무더위 쉼터 운영 중단으로 폭염에 노출된 1인 가구 어르신과 청년에 시원한 음료를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캠페인으로 시작됐다.
 -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85,616명의 시민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, 홀몸 어르신, 야외노동자, 쪽방촌 주민 등 우리 이웃에 음료가 전달됐다.
- 올해 진행되는 「얼음땡 34.9 캠페인」에서 ‘34.9’는 한 여름 쪽방촌 온도 ‘34.9℃’를 의미하며,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,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원함을 나누자는 뜻에서 시민 나눔 행동 349회를 모은다.

□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HK 이노엔에서 34,000병의 물과 음료를 후원받아, 파트너 단체에 전달했다. 단체는 이 음료를 활용해 방문하는 시민에 캠페인을 알리고, 이웃에 시원함을 나누는 행동을 모으면 된다.

□ 20개 파트너 단체는 쉽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곳에 ‘얼음땀 정거장(동네 냉장고)’을 설치하거나 봉사자가 직접 ‘찾아가는 얼음땀’을 운영, 시원한 음료와 손부채 제공해 시민 나눔 활동을 돕는다.

○ 20개 파트너 단체(가나다순)

▲관악 1.5도씨, ▲관악구립중앙사회복지관, ▲광진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, ▲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, ▲나눔코리아, ▲(사)더불어함께 새희망, ▲동작구자원봉사센터, ▲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, ▲마포구 시설관리공단, ▲메디케어, ▲사단복지법인원봉공회, ▲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나눔봉사단, ▲순환지구(제로웨이스트샵), ▲신월종합사회복지관, ▲양천구자원봉사센터, ▲연봉인상, ▲밝은파란나눔단, ▲중계본동 자원봉사캠프, ▲지평선, ▲플라프리(제로웨이스트샵)

□ 한편,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가정에서 직접 물을 얼려 이웃에 전달하거나, ‘얼음땀 정거장’을 방문해 시원한 음료와 손부채를 가져와 전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. 무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택배기사, 배달기사, 아파트 경비원분들이나, 더위로 힘든 주변 이웃에 시원함을 전하고 활동을 인증하면 된다.

□ 시민 나눔 활동은 V세상(volunteer.seoul.kr) 플랫폼에서 인증할 수 있으며, 이렇게 모인 349회의 행동은 다시 한번 ‘특별한 선물’이 되어 지역사회 이웃에 돌아간다.

-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목표한 나눔 행동 달성 시 기업후원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방 용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.

- 송창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은 “기후 위기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폭염, 폭우, 폭설 시기에 내 가족을 돌보듯 이웃을 살피는 것”이라면서 “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선한 행동을 한데 모아 지역에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도전형 캠페인을 지속하고자 한다.”고 말했다.

- 캠페인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와 시민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(☎1670-1365, ☎02-2136-8754)로 문의하면 된다.

붙임. 참고사진 4매.



놀이보다 즐거운

얼음 땀

7.21. ~ 8.31.

더위는 열리고 마음은 녹이는 **349개의 나눔 행동 모으기!**

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. 한 여름에 짝방촌 온도는 **34.9**도까지 올라간대요.

우리 주변 무더위에 지친 이웃들의 열을 '땀!'하고 식혀줄 수 있도록

당신의 작은 행동을 모아주세요!

349개의 행동이 모이면, 특별한 선물이 이웃들에게 전달돼요!

참여방법



주변에 무더위에
힘든 이웃을
떠올려보기



떠오르는 이웃에게
시원함을 전하기



시원함을 나눈 이야기를
플랫폼에 인증하기

349개 정성 모으기



[사진 1] 포스터

📍 얼음 땡 정거장[설치형]
 📍 찾아가는 얼음 땡[이동형]
 📍 혼합형



[사진2] 얼음땡 정거장 위치 지도(20개 단체)



[사진3] 노원구 증계본동 자원봉사캠프 정거장
 - 자원봉사캠프 활동가가 음료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. -



[사진4]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정거장
 - 어르신이 얼음땡 동네 냉장고를 이용 중이다. -